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秋의혹' 공방

추미에 장관 국회 출석... '아들 휴가 민원 넣은 적 없다' 민주 "모든 기록 적법 입증"...국민의힘 "여권 옹호, 도 넘어"

17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성토의 장으로 전락했다.

추 장관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을 상대로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부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며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 시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서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는 발언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 요청을 했다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복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당 대표 보좌역이 세 차례에 걸쳐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정연 전화를 한 것 같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당 대표 이전부터 10여년 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

실의 보좌관"이라고 답했다.

보좌관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방어막을 높이 쳤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연대통합행정망 기록을 보면 추 장관 아들이 규정에 어긋

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며 "전화 휴가 연장 기록이나 경합담도 많기에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관계"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제의 본질은 '아프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병가를 내고 특권적인 휴가를 썼느냐'라며 "추 장관 아들은 아팠고, 수술과 치료를 받아 휴가가 연장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7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논란과 관련해 여권의 옹호 발언이 정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변인 발언과 함께 홍영표 의원이 국민의

힘 의원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지칭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이 펼치는 '서 일병 구하기' 막말·거짓말 퍼레이드에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슬그머니 내용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내고 어정쩡한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박 원내대변인의 당직 사퇴와 민주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날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안중근 의사" 발언에 대해 "희대의 망언"이라며 "정신 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긴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훈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통신비 지급' 여권내서도 반대 목소리

정 총리 "취약계층 우선돼야" 최강욱 "실질 효과 의심" 심상정 "밀어붙인다면 아집"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국민에게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하자는 계획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내에서도 일부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

린 상무위원회에 참석, 당정이 마련한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나 김경수 경 남지사 등 정부 여당 내에서도 핵심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어기 밀어붙인다면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야당의 지적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게 협치"라면서 "정

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 셋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방향을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취약계층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것보다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게 더 불요불급한 상황이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고 묻자 정 총리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총리의 어떤 결정을 여쭙고 싶은 겁니까" 라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정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런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복지·과방위원장 교체 절차 고심

野 원구성 양금... 표결 협조 어려워 의결 지연 가능성

국회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 교체 절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위와 과방위를 각각 맡고있는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박광은 사무총장의 사보임을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갈등이 풀리지 않아 국회 표결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여야 협치 등을 고려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사보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원내 상황을 고려해 진행이 보류됐다. 특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임명이 늦춰질 것이라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민주당은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 후

임으로 김민석, 이원욱 의원을 내정할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직 문제가 남아있는 한 다른 원 구성 변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원 구성에 야당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여당의 당무 상황 변화에 따른 교체 절차에 굳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보임 절차를 일반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어려우니 여야가 더 협의해달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에서 의지를 갖고 타진하면 적극 중재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내달 국정감사 전까지는 위원장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인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이상직·김홍걸 기초조사

윤리감찰단 가동... 추석 전 1차 결론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당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을 본격 가동했다.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등 최근 잇따라 일부 의원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고 제명까지 처분할 수 있는 당 윤리감찰단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늘 본격 조사를 앞두고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금명간 당 내의 인사로 구성되는 감찰단 인선도 완료할 것"이라며 "추석 전에 1차 결과물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 당헌·당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충실하기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에서는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

상인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자진해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해주기를 내심 바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해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의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두 의원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조사에 성실히 이해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만나 본인의 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현재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허용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탈당파의 복당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원 강릉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권 의원은 당선 직후 복당을 신청했다. 5개월 만에 복당 신청이 받아

들여진 것이다. 지도부는 당명과 정당·정책을 바꾸는 등 당이 새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약 한 달전부터 권 의원의 복당 허용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처럼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무소속 4인방' 중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 등은 아직 복당하지 못한 상태다. 이종홍표 김태호 의원은 이미 복당의 지지를 밝힌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